



## 빛과 컬러, 움직임: 제니스가 현대 미술가 펠리페 판토네의 세 번째 콜라보레이션 시리즈로 DEFY SKYLINE TOURBILLON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현대 미술과 오프 올로제리의 세계가 만나 다시 한번 다양한 컬러와 시각적 디테일의 향연을 펼쳐 보입니다. 스위스 최초의 통합형 시계 매뉴팩처 제니스와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 펠리페 판토네(Felipe Pantone)가 세 번째로 함께하는 이번 시리즈는 협업 프로젝트에 등장하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승화시켜 다시금 모두의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1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DEFY Skyline Tourbillon Felipe Pantone 는 2024년 9월 12일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과 첨단 워치메이킹이 완벽한 조화가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2020년 유서 깊은 제니스 매뉴팩처의 메인 빌딩에 특별한 방수포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 데 이어, 제니스와 발렌시아 출신의 옵티컬 아티스트 펠리페 판토네는 여러 차례 시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오로지(Only Watch) 자선 경매에서 제니스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DEFY 21 Double Tourbillon을 사파이어 케이스를 탑재한 독특한 디자인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 DEFY 21은 출시 직후 매진되었고, 2022년에는 이를 계승하여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은 DEFY Extreme Felipe Pantone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제니스와 펠리페 판토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협업을 계속해서 이어 나갑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에서 아티스트는 DEFY Skyline Tourbillon을 캔버스 삼아 최초로 DEFY Skyline 모델을 재해석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타임피스는 아주 컴팩트하고 실용적이면서도 제니스와 펠리페 판토네의 지속적인 협업에서 특징적인 요소로 주목받는 정교하고 독창적인 디테일로 가득합니다.

제니스와의 새로운 협업에 대해 펠리페 판토네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니스와의 최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지금까지 중 가장 특별한 시계를 선보이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심플함과 세련미를 겸비한 오프 올로제리의 걸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면서도 미니멀한 타임피스는 작은 그라데이션 인덱스와 핸즈, 'Planned Iridescence' 미러 다이얼, 독특한 번개 모양의 작은 뚜르비옹과 같은 매력적인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41mm 팔각형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제작된 DEFY Skyline Tourbillon Felipe Pantone는 기하학적이고 각진 실루엣 프레임 속에 담긴 미니어처 키네틱 아트워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새틴 브러싱 및 폴리싱 마감을 번갈아 적용했을 뿐 아니라, 손쉽게 교체 가능한 스틸 브레이슬릿과 블랙 러버 소재의 추가 스트랩을 갖추어 비주얼적인 요소뿐 아니라 인체공학적인 요소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유니섹스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날렵한 각면과 매끈하게 폴리싱 처리된 라인을 강조하는 12각형 베젤은 탁월한 빛의 향연을 펼쳐 보입니다. 앞서 선보인 제니스 X 펠리페 판토네 프로젝트를 이어 가는 의미로, 케이스의 각 모서리에는 Felipe Pantone Tourbillon #1을 의미하는 “FPT1” 문구가 인그레이빙되어 있습니다.

DEFY Skyline Tourbillon Felipe Pantone 에서 한눈에 시선을 끌어당기는 요소는 바로 중앙 디테일입니다. 60 초마다 한 바퀴 회전하며 시계에 늘 활력을 불어넣는 뚜르비용 메커니즘은 6시 방향의 오프닝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스페셜 에디션의 경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펠리페 판토네의 방대한 작품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반영하여 뚜르비용 브릿지를 특별히 번개 모양으로 제작했습니다. 뚜르비용 브릿지와 4 각 별 모양의 케이스에는 앞서 2021년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에서 선보인 바 있는 메탈릭 레인보우 그라데이션 톤으로 완성된 3D PVD 기법을 적용하여 펠리페 판토네만의 고유한 미학을 한층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니스 X 펠리페 판토네의 이전 작품과는 다르게, DEFY Skyline Tourbillon Felipe Pantone의 다이얼은 전체가 무지갯빛을 띕니다. 사파이어 디스크로 제작된 다이얼은 동심원을 마이크로 인그레이빙 패턴으로 장식하여 판토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무아레 시각 효과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파이어 다이얼의 뒷면은 미리 메탈릭 마감 기법에 마이크로 인그레이빙을 결합하여 마치 CD를 보는 듯한 화려한 컬러를 연출합니다. 또한 사파이어 다이얼 디스크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비네트 효과를 가미하여 다이얼에 깊이감을 더하고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미리 처리된 뒷면, 마이크로 인그레이빙 패턴, 비네트 효과의 조화는 기술적으로나 비주얼적 측면에서 모두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정교함이 돋보이는 위업으로 손꼽힙니다.

핸즈와 애플리케 아워 마커 또한 그만큼 정교하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펠리페 판토네 시그니처 스타일인 시각적 왜곡을 적용하여, 핸즈와 아워 마커 모두(3시, 9시, 12시 방향의 방위를 표시하는 "크로스헤어" 마커 제외) 중간 부분을 살짝 비틀어 마치 그래픽이 깨진 듯한 연출을 선보입니다. 6시 방향의 뚜르비용과 마찬가지로 핸즈와 마커 또한 레인보우 그라데이션 톤을 띠고 있습니다.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엘 프리메로 3630 고진동 오토매틱 매뉴팩처 무브먼트로 구동되는 DEFY Skyline Tourbillon Felipe Pantone는 무브먼트까지도 아티스트 특유의 시그니처 컬러를 도입하여, 레인보우 PVD 마감 기법을 적용한 별 모양 로터가 뚜르비용 케이스 및 브릿지, 다이얼의 다른 메탈릭 디테일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니스 X 펠리페 판토네의 최신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모델은 맞춤 시계 박스에 담겨 제공되며, 아티스트가 독보적인 스타일로 디자인한 박스는 내외부 모두 무지갯빛 패턴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1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DEFY Skyline Tourbillon Felipe Pantone는 9월 12일 오후 2시(CEST)부터 제니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부티크와 엄선된 리테일러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 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 펠리페 판토네 소개.

펠리페 판토네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페인 예술가로, 12 세에 그래피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순수미술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곳에 스튜디오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토네의 작품은 역동성, 변형, 디지털 혁명, 그리고 현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펠리페 판토네는 네온 그라데이션 컬러, 기하학적인 형태, 옵티컬 패턴, 지그재그 모양의 그리드로 인간과 기계가 서로 필연적으로 어긋나며 오류가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며 마치 아날로그식 과거와 디지털화된 미래가 충돌하는 듯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판토네는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작금의 기술 시대에 큰 영향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랫동안 전자 기기의 화면을 바라보며 자란 그는 빛 스펙트럼이 이동함에 따라 컬러와 반복적인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합니다.

판토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컬러는 빛이 있기에 존재하며, 빛은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빛과 컬러는 비주얼 아트의 본질입니다. TV, 컴퓨터, 현대 조명 덕분에 빛과 컬러에 대한 인식이 완벽히 바뀌어 버렸죠.”*

판토네에게 있어 그의 예술은 우리가 시각적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과 같습니다. 무아레 효과(대비되는 컬러의 라인을 활용하여 마치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효과)를 활용했던 빅토르 바사렐리(Victor Vasarely)와 카를로스 크루즈 디에즈(Carlos Cruz-Diez) 같은 키네틱 아티스트에게서 영감을 받은 판토네의 현대 작품은 관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위치가 변하는 순간 진동을 일으킵니다.

판토네는 원하는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3D 형태로 파악하고, 이후 이를 프레스코화, 벽화, 회화, 조각으로 변환하여 디지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단순한 화가로 자랐고, 화가가 되는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제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표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가장 잘 맞는 도구로 자유롭게 예술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1994 년 쉐보레 콜벳(Chevrolet Corvette)을 미래지향적인 작품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하고, 포르투갈 최대 규모의 벽화를 그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판토네의 작품은 기술과 순수 예술의 교차점에 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죠.”*

**DEFY SKYLINE TOURBILLON 41MM**

레퍼런스: 03.9301.3630/49.1001

**핵심 사항:**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투르비옹. 스크류-인 크라운.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30

**진동 수:** 시간당 36,000회 – 5Hz

**파워 리저브:** 약 60시간

**기능:** 중앙 투르비옹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6시 방향에 위치한 캐리지는 1분에 1회 회전합니다. 56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투르비옹 케이스.

**마감:** "레인보우" PVD 코팅 로터

**가격:** 60,000 스위스 프랑 / 65,000 유로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10ATM

**케이스:** 41mm

**다이얼:** 틴트 처리된 사파이어 다이얼, 미러 메탈릭 처리 및 무지갯빛 레이저 텍스처 처리 기법.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레인보우" PVD 코팅 & SLN C1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레인보우" PVD 코팅 & SLN C1

**브레이슬릿 & 버클:**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별들이 수 놓인 하늘 패턴이 장식된 블랙 러버 스트랩 추가 제공. 스테인리스 스틸 폴딩 클래스프

**리미티드 에디션:** 100피스

